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강 세 현*

차 례

- I. 머리말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III. 범죄 발생 추세(1972~1994)
- IV. 관광 관련 변수와 범죄(형법범죄)
발생의 관계
- 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 지역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상철·기광도, 1994; 최인섭·박순진, 1994).

제주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 첫번째 요인으로 관광 개발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꼽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이미 국내의 몇몇 학자들은 관광 개발이 제주 지역의 범죄 문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개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진혜은 터이다(신행철, 1988; 김태보, 1991; 전경수, 1994: 268; 최인섭·박순진, 1994: 82; 박태수, 1995).

이 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관광 산업의 성장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여태까지 관광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제주의 범죄 문제를 관광 산업의 성장과 연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심 내용을 이룬다. 관광 산업 관련 요인들은 과연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관광 산업 관련 요인들 가운데 특히 어떠한 측면이 범죄 발생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 글은 통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응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이 글에서는 실제 제주에서 발생하는 범죄 발생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1972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 문제

1960년대 초 관광 개발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하기 시작한 제주의 관광 산업은 관광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급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제주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제주도, 1993: 1044-7). 관광 산업이 포함된 3차산업은 1961년에 지역 총생산의 33.5%를 차지했으나 그 후 계속 성장하여 1990년에는 62.0%로 증가했으며, 3차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구성비도 1961년의 17.8%에서 1995년에는 63.0%로 증가했다(이상철, 1995b; 최승담, 1996). 이처럼 제주에서 3차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관광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확충되고 기타 관광 산업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다(이상철, 1995a). 이를테면 관광 개발의 결과, 교통·운수 등의 기반 시설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확충되어 있으며, 여행업·숙박업·전문 휴양업·식품접객업·관광객

이용 시설 등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관광 개발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관광 개발 초기인 1960년 6,59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관광 개발 사업의 진척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여 1994년에는 369만명을 헤아리는 급신장을 보였다(제주도, 1993: 1047-1055; 부록 참조). 이에 따라 관광 수입도 증가하여 1966년도 2억 2천만원 이던 것이 1995년도에는 9,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 소비 지출이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992년 현재 생산액으로 볼 때 1조 694억원으로 지역 총생산의 43.3%를 차지하고 고용 효과는 106,034명으로 지역 총고용의 65.3%를 유발하여 제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관광 개발은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근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 한 바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복지를 해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관광 개발의 여파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는 사회 문제의 증가, 계층간의 괴리와 위화감, 전통 문화의 파괴와 상업화, 외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개발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익 갈등과 이웃 공동체 해체,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불신의 증대 등 다양한 현상들을 포함한다(신행철, 1988; 조성윤, 1993; 지연희, 1993; 전경수, 1994: 253-313). 이 가운데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관광 개발 정책이 제주 지역에 가져온 보다 직접적인 결과인 물리적·사회적 환경 변화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이다.

특정 지역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구조 및 공간적 특성과 범죄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환경 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 산업의 성장은 다음에 제시하는 기제를 통해 범죄 유발적 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¹⁾ 우선 제주도에서 숙박업·음식업·교통 운수업·여행 알선업 및 기타 오락

1) '환경 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이라는 용어는 장소(place)와 범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분야로서 '범죄 지리학(the geography of crime)', '범죄 생태학(the ecology of crime)'으로 지칭하기도 한다(Bottoms & Wiles, 1992).

· 문화 서비스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과 소비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 현상은 상업적 소비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물질주의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 즉 관광 산업이 증대함에 따라 돈을 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소비 문화는 사회 생활 전반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돈과 물질 위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풍조를 조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분전환과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의 기능을 갖고 있는 관광은 정상적이고 법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광지의 이색적인 환경 속에서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과 자극을 맛보려고 하는 단기쾌락주의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Parker, 1976: 48). 단기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일탈적 여가 문화는 비단 관광객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생활에까지 배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데, 프로이트(Freud, 1961)나 뒤르켐(Durkheim, 1951)이 행한 고전적 연구들은 사회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쾌락주의 추구가 우리 사회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 준다. 즉 물질주의적 가치의 추구하고 단기쾌락주의적 욕구의 증대는 개인에 대한 도덕적 구속력과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약화시켜 결국에는 사회적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참조한다면 관광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상업적 소비 문화와 일탈적 여가 문화의 확산은 물질주의와 단기쾌락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회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영업 활동이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는 각종 유흥·향락업소와 유원지들, 그리고 관광객의 잦은 왕래로 인한 높은 인구 이동성은 직접적인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일탈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범행 대상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 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관광 산업의 성장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변화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와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변수 설정은 불가피하게 이용 가능한 자료의 성격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의 범죄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자료는 대검찰청이 매 해마다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이다. 이 자료에 의존한 까닭은 범죄 발생에 관한 사항을 범죄 형태별로 세밀하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공식 범죄 통계 자료가 『범죄분석』 이외에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항목은 『범죄분석』 가운데 ‘범죄와 지역’ 항목이다. 그런데 ‘범죄와 지역’ 항목의 자료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972년 이전 제주의 범죄 발생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다.²⁾ 따라서 이 글은 부득이 1972년 이후 제주 시 지역의 범죄 발생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 발생 양상의 분석에 있어 또 한가지 밝혀두어야 할 사항은 『범죄분석』에 제시된 범주대로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제시하는 한편 행정편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범죄를 가능한한 제외하는 대신 반윤리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격의 범죄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원래의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³⁾ 즉 『범죄분석』에서 특별범죄로 분류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하여 ‘형법범죄(수정치)’라는

2) 『범죄분석』에서는 1979년 이전에는 인구 10만 이상, 1980년 이후로는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한하여 범죄 발생 건수를 세부적으로 집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1971년 이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도시로 분류됨으로써 제주의 범죄 발생에 관한 범주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3)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범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된다. 그런데 특별법범죄 중에는 윤리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형법을 더욱 강화하거나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형법법이 있는가 하면, 윤리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색채·행정편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행정 형법법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위반은 특별 형법법에 속하고,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주민등록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은 행정 형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임용, 1990).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분석에 임했다. 이렇게 하는 주된 까닭은, 최근 들어 전체 특별법범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형법의 일부 조항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각 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형법범죄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최인섭·박순진, 1994: 14). 또한 이 글에서는 형법범죄(수정치)를 크게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서 유형별 범죄 발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등 6개 범죄는 재산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은 폭력범죄로 분류하였다.

한편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관광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와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했으나 통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찾아보리란 그리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글의 분석에서는 상식적 및 이론적으로 범죄 설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수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종적으로 이 글에서 고려하고 있는 관광 산업 관련 변수는 관광객 수, 유흥 음식점 수, 호텔 및 여관 수이며 이외에 배경 변수로서 인구 수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들에 관한 자료 수집은 제주시가 매 해 발간하는 「통계연보」, 제주도의 「제주경제지표」(199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1995)에 의존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통계 자료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집계한 수치를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고 통계 분석에 이용했다.

III. 범죄 발생 추세(1972~1994)

1. 전체 범죄의 발생 양상

<표 1>은 제주시의 전체 범죄, 형법범 및 특별법범 발생 건수, 인구 10,000명당 형법범 및 특별법범 발생 건수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표 1> 전체 범죄 발생 상황(1972~1994)

연도	발생건수			총인구	범죄율		
	전체	형법범	특별법범		전체	형법범	특별법범
'72	4,906	2,107	2,799	113,656	431.65	185.38	246.27
'73	3,815	2,013	1,802	117,585	324.45	171.20	153.25
'74	3,765	1,684	2,081	127,472	295.36	132.11	163.25
'75	4,025	2,116	1,909	135,189	297.73	156.52	141.21
'76	4,726	2,470	1,256	139,246	339.40	177.38	162.02
'77	6,481	2,972	3,509	145,451	445.58	204.33	241.25
'78	4,766	2,370	2,396	152,486	312.55	151.29	157.13
'79	4,609	2,260	2,349	160,981	286.18	140.39	145.92
'80	5,851	3,068	2,783	167,546	349.22	183.11	166.10
'81	6,928	3,756	3,172	174,895	396.12	214.76	181.37
'82	8,393	3,688	4,705	182,005	461.14	202.63	258.51
'83	9,245	3,106	6,139	188,518	490.40	164.76	325.65
'84	8,265	2,401	5,864	195,071	423.69	123.08	300.61
'85	8,483	2,643	5,840	203,289	417.29	130.01	287.28
'86	9,549	2,575	6,974	210,490	453.66	122.33	331.32
'87	9,488	2,135	7,353	216,833	437.57	98.46	339.11
'88	10,921	2,070	8,851	223,285	489.11	92.71	396.40
'89	12,340	2,407	9,933	229,815	536.95	104.74	432.22
'90	14,283	2,652	11,631	232,643	613.94	114.00	499.95
'91	16,146	2,976	13,170	228,665	705.88	130.15	575.95
'92	16,171	3,034	13,137	237,774	680.10	127.60	552.50
'93	17,795	3,127	14,668	243,301	731.40	128.52	602.87
'94	17,674	3,764	13,910	248,872	710.16	151.24	558.92

주: 범죄율은 인구 10,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임.

자료: 대검찰청(1972-1995); 제주시(1973-1995).

<표 1>에서 보듯이,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총 망라한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1972년에 4,906건으로서 그 후 1970년대 말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1980년 이후로는 1984년의 감소, 1987년과 1994년의 소폭 감소 추세를 제외하면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17,674건에 이르고 있다. 197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3년 동안 3.6배 가량 증가했으며, 또한 인구 10,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972년 431건이

던 것이 1994년에는 710건으로 1.6배 가량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속에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성비를 보면 1981년까지는 형법범이 많은 연도와 특별법범이 많은 연도가 반반 정도 되나, 1982년부터는 특별법범이 형법범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데 199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법범 발생 건수 및 범죄 발생률은 형법범의 3.7배 가량 된다.

형법범 발생 추세를 보면 1972년 이래 1980년대 말까지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형법범 발생 건수는 1.8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범죄의 3.6배, 특별법범의 5배 가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범 발생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인구비를 감안할 경우 1972년의 범죄 발생률이 185건이던 것이 1994년에는 151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범죄가 형법범에서 제외되고 특별법범으로 전환된 해인 1982년의 형법범 범죄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4년의 범죄율은 1982년과 1983년에 비해 여전히 낮다.⁴⁾ 그렇다면 지난 23년간 전체 범죄의 증가 추세는 형법범보다는 특별법범에 의하여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별법범 속에는 매우 다양한 법 위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특색을 규정하기가 몹시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최근 들어 특별법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 범죄이다.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2년에 636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는 3,074

4) 교통사고로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 범죄의 대부분은 1981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법범죄로 처리되었으나, 1981년도 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1982년부터는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5) 교통범죄는 육상, 해상, 항공의 각종 교통 수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교통 질서 위반 범죄와 그와 같은 교통 수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 사고 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김두섭·기광도, 1996).

건으로 4.8배 가량 증가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1972년 64건이던 것이 1994년에는 4,813건으로 무려 75배 가량 증폭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4년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합한 범죄 발생 건수는 특별법의 57%, 전체범죄의 4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대검찰청, 1972-1995).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체범죄의 증가 추세에서 교통 범죄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교통 범죄의 대폭적인 증가는 자동차의 생활화가 가속화되어 왔고 또 제주에서 교통·운수 사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제주 지역의 범죄 발생률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비교 대상 지역을 서울, 부산,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경북·대구, 전라·광주, 제주로 구분하여 전체 범죄의 지역별 범죄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이상철·기광도, 1994), 제주 지역은 1973년부터 1985년까지는 비교적 높은 범죄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한 후, 계속 증가하여 1991년에는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형법 범죄율과 특별법 범죄율에 있어서도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2. 형법범죄의 유형별 발생 양상

다음으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 규범을 해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유형별 발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표 2>에 제시된 수치들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자료에는 특별법 범죄로 분류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 상의 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형법범죄(수정치)의 총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1972년 3,017건에서 1974년에는 2,434건으로 감소했다가 1975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중간중간에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1994년의 5,331건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구 10,000명당 범죄 건수를 의미하는 총범죄율은 1972년 265.45에서 1975년 228.64로 감소했다가 1980년에는 255.51로 증가했으

〈표 2〉 유형별 형법범죄(수정치) 발생 건수 및 범죄율(1972~1994)

연도	총범죄 발생건수	총범죄율	재산범죄 발생건수	재산범죄율	폭력범죄 발생건수	폭력범죄율
1972	3,017	265.45	1,040	91.50	1,350	118.78
1973	2,743	233.28	1,093	92.95	1,072	91.17
1974	2,434	190.94	1,015	79.63	995	78.07
1975	3,091	228.64	1,084	80.18	1,398	103.41
1976	3,316	238.14	1,262	90.63	1,205	86.54
1977	4,184	287.66	1,589	109.25	1,712	117.70
1978	3,330	218.38	1,128	73.97	1,256	82.37
1979	3,271	203.19	1,186	73.67	1,263	78.46
1980	4,281	255.51	1,620	96.69	1,625	96.99
1981	5,666	323.97	2,044	116.87	2,450	140.08
1982	6,031	331.36	2,468	135.60	3,005	165.11
1983	4,966	263.42	2,097	111.24	2,428	128.79
1984	3,932	201.57	1,608	82.43	1,975	101.25
1985	4,003	196.91	1,810	89.04	1,865	91.74
1986	4,367	207.47	1,500	71.26	2,329	110.65
1987	4,093	188.76	1,252	57.74	2,400	110.68
1988	4,196	187.92	1,136	50.88	2,597	116.31
1989	4,452	193.72	1,446	62.92	2,512	109.31
1990	4,573	196.57	1,647	70.80	2,364	101.61
1991	5,046	220.67	1,976	86.41	2,474	108.19
1992	4,849	203.67	1,963	82.56	2,199	92.48
1993	5,153	211.80	2,002	82.28	2,441	100.34
1994	5,331	214.21	2,526	101.48	2,805	112.71

주: 1) 총범죄: 재산범죄 + 폭력범죄 + 기타 형법범죄.

2)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3) 폭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 범죄율은 인구 10,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임.

자료: 대검찰청(1972~1995).

나, 1985년 196.91, 1990년 196.57로서 대체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에는 214.21로 증가하였다. 결국 인구비를 감안한 경우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총범죄율은 1970년대 초반의 범죄발생률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형법범죄(수정치)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자. 재산범죄의 발생 추세를 보면 어떤 뚜렷한 양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와 감소 현상을 반복하는 기복이 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대체적인 추세는 1972년 1,040건에서 1975년 1,084건, 1980년 1,620건, 1985년 1,810건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에는 1,647건으로 감소했으며 1994년 2,52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지난 23년 동안 대략 2.4배 가량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범죄 역시 재산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면서도 대체적인 추세는 1972년 1,350건, 1975년 1,398건, 1980년 1,625건, 1985년 1,865건, 1990년 2,364건, 1994년 2,805건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그 증가 폭은 2.1배 가량이다.

하지만 인구비를 고려한 재산범죄율은 1977년,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4년을 제외한다면 1972년 이래 지금까지 1972년의 범죄율을 밑돌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폭력범죄율 역시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1972년의 범죄율보다 낮은 양상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 형법범죄 가운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1976년까지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1977년 이후로는 줄곧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재산범죄를 능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총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상은 우리 나라 전체의 범죄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준호, 1990).

이상의 범죄 발생 양상을 우리 나라의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들과 비교해 본다면, 제주 지역은 1975년 이후 1990년에 이르기까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수정치), 재산범죄, 폭력범죄 모든 측면에서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인섭·박순진, 1994: 74-8).

IV. 관광 관련 변수와 범죄(형법범죄) 발생의 관계

1. 변수 설정과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관광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변수들이 형법범죄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재 한 사회의 범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형법범죄 총 발생건수(수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제주시의 관광 산업 관련 자료와 인구사회적 배경에 관한 자료들 가운데 범죄 발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통계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집한 다섯 가지 변수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기술한 것이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

변 수	설 명
Y	형법범죄 총 발생건수(수정치)
X ₁	제주시의 인구수
X ₂	제주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수
X ₃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 수
X ₄	제주시내의 유흥음식점 수
X ₅	제주시내의 호텔·여관 수

<표 3>에서 보듯이 이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설명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변수 X₃, X₄, X₅는 관광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X₁, X₂는 도시의 인구 성장 및 산업 구조와 연관된 배경 변수이다. 이들 각각의 설명 변수들은 1972년부터 1994년까지 23년간의 자료를 연도별로 수집·정리한 것이다.

<표 4>는 위의 다섯 가지 설명변수 모두를 포함시킨 경우의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다섯 가지 설명 변수 각각이 개별적으로 형법범죄 총 발생건수와 갖는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소 0.502 - 최고 0.699로 매우 높은 상관성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이 늘수록, 유흥음식점과 호텔 및 여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구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할수록 범죄 발생도 증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설명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각각의 변수들이 범죄 발생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표 4>에 제시된 회귀계수와 t값은 다음의 선형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값들이다.⁶⁾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mu \quad (I)$$

<표 4>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전체 변수를 포함시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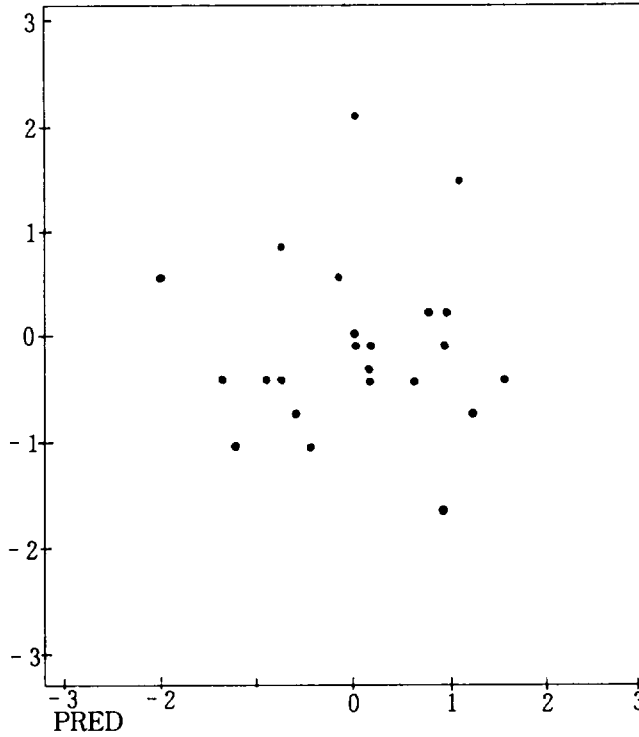
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	상관관계 행렬표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범죄
인구(X ₁)	.9740	2.064	1	.919***	.862***	.914***	.935***	.699***
서비스업 종사자(X ₂)	1.0627	1.649		1	.949***	.901***	.962***	.675***
관광객(X ₃)	-.3821	-.604			1	.919***	.964***	.533**
유흥음식점(X ₄)	-.7502	-1.201				1	.967***	.502**
호텔·여관(X ₅)	-.2531	-.225					1	.586**
(절편)	172.8168	.129						-
사례수 = 23			R ² = .671		F = 6.921**			

** p<.01 *** p<.001

분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모형의 가정이 심각하게 위반되었는지 또는 모형 설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측값에 대한 잔여치의 분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그림 1>은 모형에 의해 적합된 값(fitted values)에 대한 표준화된 잔여치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 6) 이 글의 분석에서는 관찰된 현상의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변수를 표준화한 회귀(베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 7) 특정한 검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형 가정의 적합성을 항상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치의 분포도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Chatterjee & Price, 1977: 70).

ZRESID



〈그림 1〉 예측값에 대한 표준화된 잔여치

표준화된 잔여치의 분포는 특별한 경향성이나 아무런 체계적 변화 형태도 보이지 않으므로 모형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선형 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요약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계수 R^2 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뿐더러 R^2 은 0.671로 형법범죄 발생 건수 변량의 약 67%를 5개 설명 변수가 설명함을 뜻한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각각의 설명변수들이 갖는 유의도 및 중요성을 검토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를 검증하기 위한 t값이 하나도 유의하지 못한데도 F 통계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

나하면 이는 분석되고 있는 자료상의 문제, 즉 몇몇의 설명 변수가 매우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흔히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지적해 주는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Chatterjee & Price, 1977: 64).

아닌게 아니라 <표 4>에서는 다공선성 문제를 드러내 주는 분석 결과들이 발견된다. 첫째, 설명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자료의 다공선성 문제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Bohrstedt & Knoke, 1989: 402). 둘째로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자료의 다공선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Chatterjee & Price, 1977: 156), 설명 변수들 가운데 관광객(X_3), 유흥음식점(X_4), 호텔·여관(X_5) 수의 회귀계수는 상관관계의 부호와는 다르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다공선성의 취급에 보다 효과적인 뒤에서 제거하는 절차(backward elimination procedure)를 사용해 단계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위의 다섯 가지 변수들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중요성을 갖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⁸⁾ 즉 <표 4>에 제시된 다섯 가지 독립 변수 모두를 포함하는 모형에서부터 출발하여 부분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계수가 가장 작은 변수를 하나씩 차례대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회귀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변수들만을 선택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와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여기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Y = \beta_0 + \beta_1 X_1 + \beta_4 X_4 + \mu \quad (II)$$

이다.

8) 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의 단계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atterjee & Price(1977: 204-5)를 참조할 것.

<표 5> 단계적 절차를 통해 선택된 변수와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
인구수(X ₁)	1.4590	4.206***
유홍음식점(X ₄)	-.8316	-2.397*
(절편)	-914.731	-.828
사례수=23	R ² =.603	F=15.181***

* p<.05 *** p<.001

<표 5>의 결과를 <표 4>와 비교해 본다면, 결정계수 R₂ 은 0.671에서 0.603으로 변하여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나 F 통계치는 6.921에서 15.181로 높아짐으로써 모형의 유의성이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립 변수 X₁(인구), X₄(유홍음식점) 두 변수가 다섯 가지 독립 변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비견할 정도로 종속 변수인 범죄 발생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변수 X₄(유홍음식점)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음(-)의 방향으로 나타남으로써 상관관계 계수의 부호와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말하자면 <표 5>의 모형에서도 X₁ 과 X₄ 사이에 여전히 다공선성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공선성이 있을 것이라 의심이 갈 때는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여기서는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회귀 모형의 구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⁹⁾ 즉 X₁(인구)과 X₄(유홍음식점)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동일하다는, 회귀 모형 II에서 회귀계수 β₁=β₄라는 가정 아래 새로운 변수 NEWVAR=X₁+X₄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 III을 만들 수 있다.

$$Y = \beta_0 + \beta_1(X_1 + X_4) + \mu \quad (III)$$

<표 6>은 회귀모형 III에 기초하여 산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9) 제약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다공선성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Chatterjee & Price(1977:163-5)를 참조할 것.

<표 6> $\beta_1 = \beta_4$ 라는 제약조건하에서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
NEWVAR(인구수(X_1) + 유흥음식점(X_4)) (절편)	.6986 1328.276	4.475*** 2.026
사례수 = 23	$R^2 = .488$	$F = 20.024^{***}$

*** $p < .001$

<표 6>에서 보듯이, 결정계수 R_2 은 0.488로 새로운 변수 NEWVAR이 종속 변수인 형법범죄 발생 건수의 변량을 49% 가량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F 통계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 제약조건이 자료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 6>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어디까지나 $\beta_1 = \beta_4$ 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 X_1 (인구수)과 X_4 (유흥음식점)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추정된 값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인구수와 유흥음식점의 증가 정도는 형법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변수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글의 분석에 포함시킨 다섯 가지 변수 모두는 각기 형법범죄의 발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 최종적으로 인구와 유흥음식점의 증가 정도가 형법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 분석 결과의 논의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산업과 관련된 많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상의 통계 분석 결과만을 보더라도 관광 산업의 성장은 범죄 유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광객과 호텔·여관 및 유흥음식점의 증가는 범죄 증가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변수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유흥음식점의 증가가 범죄 증

가에 대해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관광객 및 관광 편의 시설이 증가하는 현상 그 자체보다는 무절제한 여가 행태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범죄 문제를 일으키는 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분별한 유흥 및 향락 산업의 번창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제주에서 룸사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음식점은 1980년대 중반 즈음에 대폭적으로 생겨난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부록 참조), 여기에다가 통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신종 유흥업소인 단란주점, 그리고 무허업소와 대중음식점 허가로 사실상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포함한다면 그 증가세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흥 및 향락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및 쾌락 추구 욕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이 증대한다는 것은 곧 물질주의적 사고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 방식을 부채질함으로써 결국에는 범죄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락 풍조의 확산은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가치관 왜곡과 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글의 분석에서 배경 변수로 고려한 인구 수가 범죄 발생에 대해 갖는 설명력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구 수는 제주시의 인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글의 시간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해인 1972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또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시점인 1979년 이후의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입자 수가 줄곧 이출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이는 한마디로 인구의 도시 집중, 곧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도시화와 인구 이동 현상이 사회 병리의 주 원인이 된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사회해체론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명제이다. 토마스(Thomas)와 즈나니에키(Znaniecki)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는 사회에서는 각종의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 사회해체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Thomas, 1966: 3-10). 파크(Park, 1952: 52-63)도 토마스의 사회해체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급격한 인구 이동이 도시나 시골을 다 무질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든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시골은 황폐해지고 도시는 어수선해지며 새로운 환경 속의 사람들은 부적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탈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급격한 인구 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일탈 성향이 부채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해체론적 시각은 제주의 범죄 발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에서 관광 개발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인구의 도시 집중 또는 인구 이동 현상은 관광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범죄 문제를 야기해온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V. 맺음말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온 관광은 여러 모로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몫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제는 관광 산업의 성장이 가져올 긍정적 성과와 함께 부정적 결과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관광 산업의 진흥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말하자면 관광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관광 개발의 와중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들 가운데 특히 범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이 분석의 출발점으로 잡은 1972년 이후 제주에서는 관광 산업의 성

장과 함께 범죄 발생 역시 증가해 왔다. 그리고 관광 산업의 성장은 범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관광객과 호텔·여관 및 유흥음식점의 증가는 범죄 증가와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유흥음식점의 증가는 범죄 발생에 대해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유흥 및 향락 풍조의 확산이 물질 위주의 사고와 쾌락 추구적인 행동 방식을 부채질하여 결국에는 각종의 일탈 행위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결론적으로 관광 개발이 자칫하면 제주 지역의 범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태까지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의 성장으로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는 프로이트나 뒤르캬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범죄 문제는 그 불행의 조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범죄 문제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곱씹어 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창의력과 지혜를 모아 범죄 문제, 나아가 관광 개발의 부정적 결과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부록: 인구 및 관광 산업 관련 통계

연도	인구	이입자	이출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	관광객	유흥 음식점	호텔 여관
1972	113,656	-	-	25,945	1,492,278	23	35
1973	117,585	-	-	25,505	343,475	21	38
1974	127,472	-	-	24,555	290,010	26	39
1975	135,189	-	-	29,246	341,513	34	39
1976	139,246	-	-	30,955	352,106	33	36
1977	145,451	-	-	29,167	500,349	31	37
1978	152,486	-	-	32,817	651,648	31	47
1979	160,981	27,970	24,636	34,688	744,447	39	68
1980	167,546	35,309	31,569	49,077	669,369	54	86
1981	174,895	36,503	32,636	46,998	724,240	70	96
1982	182,005	36,513	33,762	79,443	860,334	65	83
1983	188,518	43,196	39,418	69,709	1,025,026	57	91
1984	195,071	42,799	38,188	67,147	1,217,243	52	97
1985	203,298	39,900	37,606	69,331	1,322,702	218	123
1986	210,490	40,561	38,804	77,002	1,492,308	260	150
1987	216,833	41,803	39,240	87,103	1,758,461	287	190
1988	223,285	42,471	40,405	88,934	2,000,495	313	228
1989	229,813	43,900	36,941	89,889	2,642,613	342	240
1990	232,643	47,067	39,184	128,000	2,992,096	351	264
1991	228,665	47,869	42,986	144,000	3,204,614	352	277
1992	237,774	51,201	47,083	155,000	3,421,708	353	292
1993	243,301	47,928	46,863	153,000	3,463,908	402	303
1994	248,872	50,259	47,919	159,000	3,692,548	339	311

주: 1) 관광객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제주도 전체, 나머지는 제주시의 수치를 나타냄.

2) 이입·이출자 수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에 의한 수치임.

3) 같은 자료 내에서 수치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최근에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인구, 이입·이출자, 관광객, 유흥음식점, 호텔·여관 수에 관한 자료는 제주시(1973-1995)에서 수집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수에 대한 1989년까지의 자료는 제주도(1990)에서, 1990년 이후로는 통계청(1995)에서 수집함.

〈참 고 문 헌〉

- 김두섭·기광도(1996)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1990) “우리나라의 범죄문제-공식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 241-61.
- 김태보(1991) “제주관광의 사회적 편익·비용-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관광문화』 (제주도 관광개발연구소).
- 대검찰청(1972-1995) 『범죄분석』.
- 박태수(1995)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한국지역사회교육제주도협의회 주최 제2회 지역사회 교육 심포지엄 발표 자료.
- 신행철(1988) “제주 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발전연구』(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4: 272-86.
- 이상철(1995a) “제주사회변동론 서설-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pp. 273-311.
- (1995b) “제주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변동.” 제주도연구회 제11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
- 이상철·기광도(1994)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 용(1990) “「한국사회병리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평론(2).”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사회변화와 윤리』. 법문사, pp. 62-6.
- 전경수(1994) 『문화의 이해』. 일지사.
- 제주도(1990) 『제주경제지표』.
- (1993) 『제주도지(제2권)』.
- 제주시(1973-1995) 『통계연보』.
- 조성윤(1993)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제주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59: 31-54.

- 지연희(1993) “지역개발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중문관광단지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인섭·박순진(1994) 『도시성장과 범죄-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승담(1996) “제주관광: 경쟁력 상실의 원인과 경쟁력 향상 방안.” 제주국제협의회·제주대관광산업연구소 주최.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의 미래』 심포지엄 발표 자료.
- 통계청(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 Bohrstedt, George W., & David Knoke. 1989.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장상희·홍동식 역. 『사회통계학-원리와 실제』. 박영사.
- Bottoms, Anthony E., & Paul Wiles. 1992. “Explanations of Crime and Place.” Pp. 11-35 in *Crime, Policing and Place*, edited by David J. Evans, Nicholas R. Fyfe and David T. Herbert. London: Routledge.
- Chatterjee, Samprit & Bertram Price. 1977.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Durkheim, Emil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Freud, Sigmund.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 · W · Norton & Company · Inc.
- Park, Robert E. 1952. *Human Communities: The City and Human Ec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Parker, Stanley. 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homas, W. I. 1966. *On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Person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